

학생 주도 기술 개발·제품 제작...지역 4차 산업 선도

조선대 LINC+사업단

2021년까지 국고 223억 확보
전공 불문 'UIC특성화' 교육
창업동아리·해외연수 지원도

조선대학교(총장 강동완)는 대학의 3대 건학이념 중 핵심이념인 '생산교육' 내실화를 위해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조선대는 지난 2004년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사업에 선정된 것을 비롯해 2단계 BK21 사업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굵직한 산학협력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LINC+ 사업'은 교육부가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한 LINC사업의 후속 사업과 새로 구성된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사업'을 통합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조선대는 호남제주권 일반대 산학협력 고도화형에 2017년에 선정돼 오는 2021년

(2년+3년)까지 5년 동안 223여억원을 지원받아 4차 산업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 산업·사회·문화를 선도할 산학협력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추진할 조선대 LINC+사업단은 링크플러스 사업의 비전인 'UIC QUEST 4.0'의 고도화시스템을 구축, 지역의 4차 산업 기반을 창출하고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대학 산학협력시스템을 창출한다는 비전을 앞당기고 있다.

UIC QUEST 4.0은 지역의 미래산업·사회·문화를 선도할 조선대의 산학협력 고도화 프로그램이다. ▲산학협력 행정인력 시스템의 안정화·전문화(Qualification) ▲지역 맞춤형 산학협력 고도화 ▲사회맞춤형 융복합 특성화 트랙 교육 ▲4차산업형 특성화 창업인력 양성 ▲지역성장동력 제공 선도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특화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고도화 시스템이다.

조선대는 ▲차세대 첨단부품소재 ▲메디컬·생명공학 ▲기후변화·신에너지 ▲IT·미디어·문화콘텐츠 분야 등 4대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형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000개에 달하는 가족회사가 함께 하고 있다.

조선대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UIC특성화트랙 교육은 학생들에게 자기 전공을 재 설계할 수 있는 '탈학과·신기술·제품중심'

교육을 통해 사회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는 캡스톤 디자인 교육을 통해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이 원하는 작품을 스스로 기획하고 제작하는 실무형 융·복합 인재도 양성하고 있다.

올해 사업 2차 년도를 맞이한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은 공과대학, IT융합대학, 자연과학대학 등 총 11개 대학 소속의 교원 359명, 학부생 1만840명, 대학원생 578명이 사업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취업연계교육과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삼성전자, 한국전력 등의 국내 굴지 기업 현장실습과 말레이시아(TAMNA),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 KOTRA 글로벌 현장실습에 478명의 학생을 파견했다.

LINC+사업단은 대학 창의인재양성을 위해 창업교육을 통한 학생 및 교수 브랜드 창출에도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 창업 동아리 브랜드인 X-crew는 창업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 멘토링 시스템은 창업아이템 발굴의 뒷심이 되고 있다.

또 LINC+사업단은 지난해 산업체 재직자를 위한 심리 상담과 특허 및 지식재산권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대학



조선대학교가 주최하고 산학협력단이 주관한 '2017 CU 산학협력 EXPO'.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이 행사에서 다양한 산학협력의 핵심 성과 프로그램 등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조선대 제공>

내 교수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UIC고도화 연구실(UIC_UTL)을 통해 광주지역의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업에로 기술지원을 위해 산업체와 대학이 상호협력하는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생 스타트업기업(세원머티리얼)과 함께 연구하여 치아의 변색 및 시린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약을 개발하였다.

강동완 총장은 "조선대학교 LINC+사업은 4차산업형 인재로 학생교육과 산업체

와 대학 간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술혁신과 지역사회 혁신을 견인하는 대학으로서 위상을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행복을 소비하세요" 동강대 마인드 마켓

교내 베희시장 수익금 기부

"헤어 제품이 필요했는데 학교 내 '마인드 마켓'에 뷰티미용과 친구들이 직접 개발한 제품이 있어 샀습니다. 물건 값은 제가 낼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기부하면 돼 부담도 없고 남을 돕는다는 생각도 들어 자주 이용하고 싶습니다."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학생들에게 기부 문화를 통한 나눔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다.

동강대는 교내 학생회관 1층 학생상담센터(센터장 나현주) 내에서 '마인드 마켓'(Mind Market·사진)을 운영하고 있다.

'마인드 마켓'은 동강대 학생들이 기부를 통해 나눔의 미덕을 배우도록 지난해 하반기 개소식을 열고 올 3월 새 학기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마인드 마켓'은 자신이 안 쓰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내놓은 학생, 기부금을 넣고 필요한 제품을 가져가는 학생까지 모두가 기부자가 된다.



모금액은 추후 어려운 학생들 돕기에 쓰일 예정이다.

'마인드 마켓'에 진열된 제품 가운데 뷰티미용과 학생들이 교내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직접 개발한 헤어 제품도 있고, 직접 배운 목제 DIY 제품을 기증한 교직원도 있다. '마인드 마켓'은 최

근 3개월 간 80여 명이 참여하는 등 기대 이상으로 호응이 뜨겁다.

나현주 센터장은 "학생들이 '마인드 마켓'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2018년 8월 졸업예정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졸업환송회 호남대학교 국제교류본부(본부장 손완이)는 최근 상하관 소강당에서 '2018년 8월 졸업예정 외국인 유학생 졸업환송회'를 열었다. 외국인 졸업생 238명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한국어학과 선치신과 경영학과 궁수팡이 공로상, 경영학과 우윤수, 위엔위쉬엔, 손다빈이 성적우수상, 관광경영학과 왕보 등 19명이 TOPICK취득상을 각각 수상했다. <호남대 제공>

신임 조선이공대 총장에 조순계 교수

제11대 조선이공대학교 총장으로 이 대학 정보통신과 조순계(사진) 교수가 선출됐다.

조선이공대학교는 최근 직선제로 치러진 선거에서 정보통신과 조순계 교수가 총장으로 선출돼 지난 1일부터 공식 집무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신임 총장은

12년만에 직선으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4년이다.

조 신임 총장은 "조선이공대를 꿈과 맘으로 미래가치를 키우는 대한민국 대표 직업 교육대학으로 바꾸겠다"며 "학생들의 개성을 살려 현재의 모습보다 미래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소통하



는 총장이 되기 위해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취임식은 12일 오전 11시 조선이공대 2호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경매 투자

- ▶경매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특수물건만 취급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자본금 1억이상
- ▶월15% 이상 수익
- 소유권/근저당으로 보장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